

장춘시 궤도교통 7개 로선, 륝속 건설 재개



3월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장춘시 궤도교통 건설 재개 현장은 열기로 가득찬 풍경이다.

19일, 궤도교통 5호선 1단계 호서로역 공사현장은 한창 드바쁜 양상이다. 호서로역은 3월 8일에 정식으로 건설을 재개, 5월 중순에 완공될 예정이다. 궤도교통 5호선은 현재 8개의 기존 및 계획 건설중인 궤도교통과 연결되는 유일한 지하철이며 실리온 벨리거리, 전진거리, 연안거리, 호서로, 흥기거리, 건정로, 장춘거리를 따라 부설하게 된다. 또한 5호선은 장춘시 주요 도시구역을 가로지르면서 장춘궤도교통 건설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호선의 1단계 공사는 총 길이가 약 19.5킬로미터로 포함 18개 지하철역, 18개 구간을 건설하는데 현재 13개 지하철역 건설이 완성되고 9개 구간은 복선통(双线贯通)을 실현했다. 동시에 장춘궤도교통 5호선 제 6구간인 문화광장역에서 공릉대로역까지의 시공도 3월 11일에 순조롭게 재

개되었다. 7호선 새덕(赛德)광장역 시공 현장에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바쁘게 움직인다. 대상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새덕광장역의 주체 구조는 2022년 10월말에 준공되었고 역내의 궤도 시공도 모두 완료되었다. 지난 2월말에 건설을 재개하면서 현

재는 전력설비, 통신, 소방 등 부대 시설과 출입구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다.

“올해 8월에 모든 출입구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전력설비를 설치한다. 전체 공사는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고 대상 책임자가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궤도



민생보장망 구축해 대중의 행복감 향상

요즘 안도현제 1사회복지봉사중심에 거주하는 리향량로인은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우리 로인들이 매일 산책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리향량로인은 복지중심에 입주한 후 따뜻한 보살핌은 물론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마련해주니 생활의 질도 올라갔다면서 만년의 생활에 만족을 표했다. 이 중심에 거주하는 기타 로인들도 리향량로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도현제 1사회복지봉사중심은 기존에 180개 침실이 있었고 입주률이 100%에 달했다. 지역 로인들의 날로 늘어나는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23년 안도현은 양로봉사종합청사 대상 신축을 안도현 중점 민생 대상으로 삼고 3,000여만원을 투입해 현재 1사회복지봉사중심 옆에 새로 양로봉사종합청사를 지었다. 현재 이 청사는

이미 주체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사용에 투입되면 300개 침실이 증가되어 기존에 사회복지중심에 침대가 부족하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뿐만 아니라 로인들에게 더욱 양질의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이 밖에도 이 중심은 현중의원과 의료양로결합봉사 협력협의를 체결, 의료일군들을 복지중심에 파견해 진찰활동을 펼침으로써 로인들의 만년의 생활에 든든한 ‘보호장벽’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번 전국 ‘량회’에서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 개선하며 사회치리를 강화하고 혁신’할 데 관한 내용이 2024년 정부사업 10대 사업중의 하나로 되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더욱 많은 해민 조치로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키는 것은 향후 민생 사업의 목표이다.

안도현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생을 위한 일은 실속있게 하고 민생

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세심하게 하며 로인에게 순응하는 일은 참담게 완성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욱 충실하고 보장이 있으며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량회’정신이 안도에서 뿌리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했다.

기본민생을 보장하려면 최저선을 확보해야 한다. 안도현은 빈곤대중들의 최저생활 보장 표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해민편민 정책이 정착되어 실효를 보도록 담보했다. 동태관리를 강화하고 민생보장망을 단단히 구축하여 전 현 빈곤가정의 겨울철 난방, 취학 등 실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양로체계를 보완하고 5개 공영복지중심, 41개 농촌양로봉사원, 2개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중심과 3개 사회구역 로인식당을 건설했으며 71세 대 특수난간가정의 로인 전용 개조를 완수하고 ‘15분간’ 양로봉사권을 구축함으로써 1만여명 로인의 다원화 양

통 7호선 1단계 공사는 장춘시의 동북과 서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로선으로서 장춘자동차체계기술개발구, 조양구, 남관구 및 이도구 등 주요 도시구역을 관통하며 자동차공원에서 시작해 길림대학제 4병원, 남호대로, 남호광장, 새덕광장 및 중동대시장을 경유한다. 종착역은 동환성로역이며 7호선이 건설되어 사용에 투입되면 장춘시의 교통 체계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7호선은 총 19개의 지하철역과 20개의 구간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19개 지하철역의 주체 구조와 18개 구간의 건설이 모두 완공되어 전체 공사의 90%를 완성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장춘시에서 건설중에 있는 궤도교통 로선은 총 7개로 각각 궤도교통 1호선 남쪽 연장선, 2호선 동쪽 연장선, 3호선 남쪽 연장선, 5호선, 6호선, 7호선 및 9호선이며 2월 24일부터 이 7개 로선의 건설을 륝속 재개했다.

현재 각 로선마다 진척이 다른데 그중 6호선의 진척이 비교적 빨라 3개월간의 시험 운행이 이미 끝났고 곧 건설 절차에 따라 점점 작업을 전개한다. 2호선 동쪽 연장선과 7호선은 토목 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냈고 현재 전력설비 설치 단계에 들어섰으며 기타 로선의 시공은 주로 토목 건설 단계에 처해있다.

한편, 궤도교통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춘시는 여러 건설 참여 단위를 조직하여 장춘궤도교통 공사 재개 동원대회를 개최하고 안전생산 책임을 엄격하게 구체화했으나 안전생산 보장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전개하며 감리(监理) 안전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응급처치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정현관 류향휘 기자



2024년 아동 의료위생 봉사체계 일층 보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위생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대중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를 주제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부사장인 리대천은 회의에서 “2024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동 의료위생 봉사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정부사업보고의 요구에 따라 아동 의료위생 봉사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것이다.”라고 표했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소아과 의사의 부족 혹은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은 문제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소아과 진단과 치료의 균질화, 규범화를 어떻게 추동하고 소아과 진료의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리대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아동 의료위생 봉사 수요에 직면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동 의료위생 봉사체계를 적극 개선하고 아동 의료위생 봉사 개혁 및 발전을 계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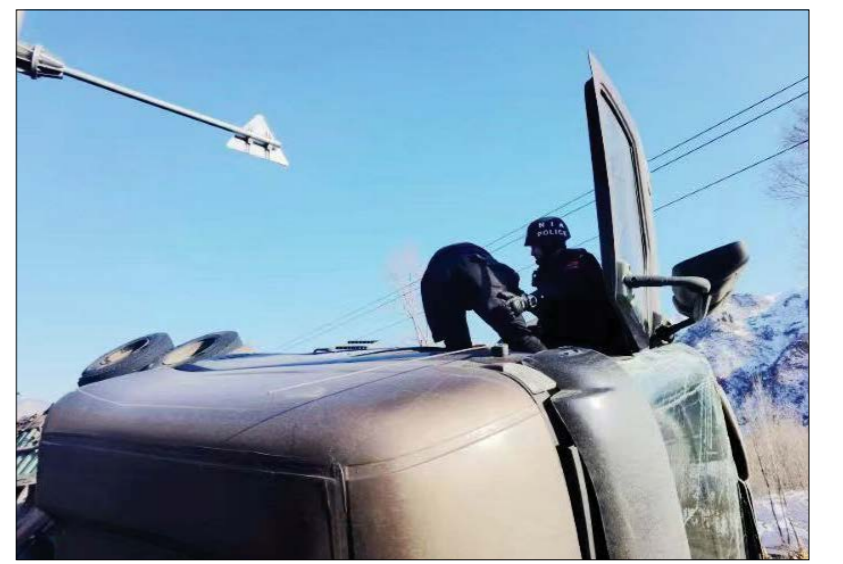
하며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향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첫째, 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전국에 2개의 국가아동의학중심과 5개 국가아동구역의료중심을 설립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소아과 관련망의 건설을 추진했다.

둘째, 아동 질병 진료와 봉사 수준을 향상시켰다. 국가아동의료품질중심망을 설립하고 67개 아동 관련 국가 임상 중점 전문대상을 지원하고 중대 질병 진료 지침과 규범을 제정했으며 아동실체종양(儿童实体肿瘤)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성을 포괄하는 아동실체종양 진료협력망을 구축한 동시에 아동 중대 질병 등록관리 시스템을 건립했다.

셋째, 기증 봉사 능력을 향상시켰다. 기증의료위생기구, 부유보건기구와 아동병원, 종합병원 소아과의 연동을 추동하고 의학연합체에 의거하여 아동 의료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아동들의 양질 의료봉사 가급성을 향상시켰다. /인민넷 - 조문판

대형 트럭, 길옆 골짜기에 전복되었다가



3월 14일 오후 2시 57분경, 백산변경관리지대 십일도구변경파출소, 팔도구변경파출소, 팔도구변경파출소의 연합변경순찰조는 팔도구변경으로부터 구도구촌 구간을 순찰하다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 한대가 길옆의 깊은 골짜기에 질을 뚜렷하게 제고시켰다.

안도현민정국 책임자는 “올해 우리는 3개 가두에 각기 1개의 로인식당을 증설하고 212세대 특수난간 로인 가정의 로인 전용 개조를 실시하며 양로공급구조를 조정하고 양로자원을 부단히 풍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도현은 미성년보호사업체계를 보완하고 ‘새책 보호’, ‘인터넷 정화’ 등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100여만 원을 투입해 현재 52명 고아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사회구역사업자 + 아동주임’ 정밀관심 모식을 적극 추진하여 전 현의 9개 향, 진과 3개 가두에 사회사업소와 아동주임을 전면 피복함으로써 방치아동들에게 ‘사랑의 보호막’을 마련해주었다. /연변일보

안전에 주의하도록 오가는 차량들에 제시했다. 알고보니 운전수는 혼자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다가 길이 미끄러워 차가 길옆 골짜기에 빠져 전복되었던 것이었다.

사고 발생후 경찰들은 해당 부서에 연계를 위해 기증기를 불러다가 골짜기에 빠진 차를 견제하고 수리부까지 운송해주었다.

트럭 운전수는 “인민경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경찰들의 적극적인 구조에 감동해 하지 않았다.

/리준량(李俊良), 장원수(张元首), 최창남기자

장백현 십사도구진, 봄철 소방안전사업 중시



최근, 장백변경관리지대 십사도구변경파출소는 봄철 소방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지 소방부문과 연합하여 관할구역에서 봄철 소방안전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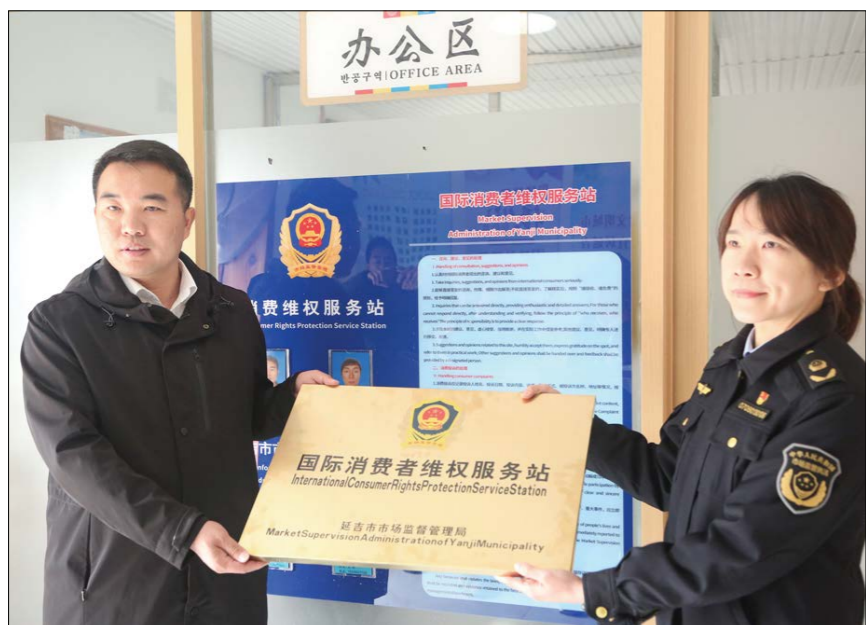
십사도구변경파출소는 현지 소방대원들과 함께 중소학교, 유치원, 소형 의료기구, 마트, 식당, 라면, 노래방, 미용원과 일부 생산 가공기업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소방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상황에 따라 사상교육 혹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 일부 민영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지식에 관한 강좌를 조직하고 소화 요령, 화재 사용, 주택 혹은 산불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을 통해 십사도구진의 봄철 소방안전사업이 한층 더 강화되고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소방안전 의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장점산(张占山), 최창남기자

연길시, 국제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 3곳 추가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연변 관광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수부 도시인 연길시도 관광의 급행차를 타게 되었다. 19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길시의 양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소비분쟁을 제때에 해소하며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연길시공공왕국, 중국조선족민속원, 서시장 등 관광지에 3개의 국제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를 설립했다.

19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3개 국제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에서 현판하고 선전란을 설치했다. 동시에 조정을 설치하고 업무규정, 업무절차, 업무직책과 업무제도를 작성하도록 지도했다. 국제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의 설립은 분쟁 처리의 시간을 단축하고 모순분쟁을 원천에서 해결하며 소비분쟁을 일선에서 화해시키고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외국 관광객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편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의 책임자는 “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의 설립을 통해 기업의 성실경영 형상을 수렴하고 자률의식을 제고하게 된다.”면서 “반드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과 봉사의 품질을 제고하며 소비분쟁의 발생을 줄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연길시에는 소비자권익수호봉사소가 178개 있는데 2023년부터 소비분쟁 800여건을 조정하여 경제손실 1만 5,000여원을 만회했으며 일반 소비분쟁의 화해는 기업에서, 해소는 기증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해결은 원천에서 이루어지게 했다. /정현관기자

